조계종 행자교육 변천 총망라한다

교육원, '행자교육원 30년사' 편찬 추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의 사문이 되기 위해 출가를 하게 되면 꼭 거치는 절차는 행자다. 일반적으로 출가자들은 6개월 이상을 출가 사찰에서 행자로 생활하며 출가수행자로서 기초를 다진다. 6개월 이상의 행자교육 기간이 끝나면 조계종 행자교육원에 입교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조계종은 1년에 두 번(3, 9월)에 걸쳐 행자교육원을 운영한다. 행자가 행자교육원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 행자교육원은 출가자로서 기본 자질을 익히는 조계종의 기초 교육기관인 것이다.

조계종 행자교육원은 1991년 처음 설립됐으며, 총무원 계단위원회가 맡아오다가 교육원 별원 후인 1995년부터는 교육원에서 담당해오고 있다. 설립 30년을 맞은 행자교육원의 변천사를 담은 백서 발간이 추진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4월 7일 〈행자교육원 30년사〉 편찬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편찬위원회 증명으로는 종정 중봉성파 대종사가 추대됐으며, 위원장으로는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편찬위 추진위원장으로는 교육부장 서봉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편찬위원으로는 △덕문 스님(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정오 스님(전통의례전승원 학장) △대경 스님(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장) △효명 스님(쌍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경암 스님(계단위원) △보천 스님(수계교육 교수사) △인해 스님(통도사 승가대학장) △연각 스님(송광사 승가대학장) △계호 스님(前 진관사 주지) △상덕 스님(청암사 주지) △일진 스님(前 수계교육 교수사) △현준 스님(수계교육 교수사) △적연 스님(前 수계교육 교수사) △명선 스님(수계교육 교수사) 등이 위촉됐다.

편찬위 발족…위원장 진우 스님
설립 주도 원로 구술사 중심으로
종단 행자교육 전반 변화들 정리
'30년사' 오는 8월 중 발간 예정


조계종 교육원은 4월 7일 〈행자교육원 30년사〉 편찬위원회를 발족하고 편찬위원들을 위촉했다.

편찬위원장 진우 스님은 "〈행자교육원 30년사〉는 1991년 개원한 행자교육원 30년간의 성과를 기록함으로서 이를 계승 · 발전시키고자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종단 행자교육을 되돌아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종단 전체의 교육 문제를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자교육원 30년사〉는 행자교육원 설립을 주도한 원로 스님들의 구술사가 중심이 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편찬위원회는 원적에 든 보성 스님, 종진 스님 등에 대한 회고담을 비롯해 前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현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등 비구 스님과 지형 · 도혜 · 상덕 · 적연 스님 등 비구니 스님들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행자교육원의 변천사를 담아낼 계획이다. 최종 발간은 8월로 예정돼 있다.

편찬추진위원장 서봉 스님은 "원적에 드신 스님들의 회고담과 원로 스님들의 구술사는 현재의 행자교육원이 있기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각종 활동 자료 및 세미나 자료, 법령집 등을 모두 담아 행자교육 관련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고시위원회 수석합격자 시상식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승가고시에서 수석합격자 스님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수진)는 4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기2566(2022)년 상반기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승가고시는 2월20일 5급 승가고시를 시작으로 3월11일에 4급, 3월25일에 1급, 4월8일에 3급 승가고시 등 총 4차례 시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1 · 3 · 4급 수석합격자 스님들이 시상했다. 1급 수석합격자는 비구 묘광 · 비구니 자우 스님, 3급 수석합격자는 비구 능현 · 비구니 법현 스님, 4급 수석합격자는 비구 설우 · 비구니 진하 스님이다.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 수행하고 니르바나로 향하는 것이 부처님의 자리이타 정신"이라며 "수석합격을 축하하며 전법과 포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종교편향 논란 넘어 '종교화합' 순례로 거듭

조계종 · 광주시 4월 12일
역사둘레길 조성 업무협약
종교화합 · 사회통합 목표
불교역사 바로알리기 기대

조계종(총무원장 원행)과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남한산성과 천진암을 잇는 '광주역사둘레길'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한산성과 천진암, 나눔의집 등 불교관련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종교화합과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계종과 광주시는 4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광주역사둘레길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광주역사둘레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협약에서 조계종은 역사둘레길 조성에 적극 협조하고 광주 지역의 불교역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광주시는 역사둘레길 조성과 유지관리, 불교문화 발굴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광주시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광주역사둘레길 조성이 국민들이 불교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전 국민을 화합시키고 문화적 향유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과 광주시는 '광주역사둘레길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동헌 시장은 "불자와 국민들이 힐링하는 공간이 되도록 광주역사둘레길을 조성하겠다"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계종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광주역사둘레길은 남한산성, 천진암, 신익희 생가, 허난설헌 묘, 나눔의 집, 조선백자 도요지, 화담숲, 경안천 생태습지공원 등 광주 곳곳에 흩어져있는 종교 · 역사 · 문화 · 생태자원을 묶어 하나의 길로 재탄생시키고자 추진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남한산성 내 폐사된 8개 사찰들을 순차적으로 복원하는 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신 시장은 앞서 추진하려 했던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남한산성과 천진암을 중심으로 '가톨릭 성지 순례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산바 있다. 특히 호국불교의 상징인 남한산성과 불교계가 운영해온 나눔의 집이 해당 순례길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신 시장은 지난해 11월 원행 스님을 예방, 사과한 바 있다.

신 시장은 협약식 후 "둘레길을 조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배경 등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오해가 있었지만 불교계의 배려로 종교대화합의 길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역사둘레길'은 광주만의 고유한 자연 · 역사 · 문화 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총 121.15㎞ 길이에 7개 코스로 만들어지는 둘레길이다. '평화와 화합으로 가는 여정'으로 동행, 이음, 사색, 성찰, 치유, 소통, 자유 등을 테마로 한다. 광주시는 2023~2025년 사업비 총 380억 원을 투입해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시설 건립 착수

불사추진위 4월 26일 양평서 착공식…2024년 완공 목표

사찰에 소장된 성보 등 불교유산들을 연구 · 보존하기 위한 연구시설이 양평에 들어선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4월 26일 양평 불교문화재연구시설 착공식을 거행한다.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은 불교문화재에 대한 종단 차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립된다. 특히 문화재 지정전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는 다량의 미지정 문화유산들까지 폭넓게 진단 관리하고 보존에서 수리 · 복원까지 다각도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종단불사추진위원회는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이 건립되면 전통사찰에 소장된 문화유산의 보존환경 연구는 물론, 과학적인 조사 · 분석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문화재 보존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종단차원에서 전통방식의 수리 · 보존체계를 구축해 잠재적인 문화유산 가치를 존속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착공식은 오후 1시 30분 종단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집전하는 개토제에 이어 2시부터 진행된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집행위원장 삼혜 스님(총무부장)이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보고하며,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용문사 주지 도일 스님에게 표창패도 수여한다. 종단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숙원과제로 꼽혀왔던 만큼, 각계 주요소임자들이 축사를 통해 착공을 축하할 계획이다. 송지희 기자


양평에 들어설 불교문화재연구시설 조감도. 사진제공=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 사회적경제 불교경제 활성 MOU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부장 주혜)은 4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사람과 사회적경제(이사장 김규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교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조계종과 사회적경제는 2014년부터 사찰과 스님을 대상으로 연수교육, 사찰창업 컨설팅, 판로 지원 등을 해왔으며 2019년부터는 '불교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약을 통해 △사찰 및 단체의 창업 및 컨설팅 지원 △사찰 및 단체의 연계사업 및 판로지원 △종교계 공동행사 추진 · 개최를 위한 상호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유 · 무형 자산과 네트워크 활용도를 높여 보다 역량 있는 불교 사회적 경제 모델을 창출하고 사찰과 단체가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자립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부장 주혜 스님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자비와 나눔이라는 부처님 가르침 아래 사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흥덕왕 3년(828) 김대렴공이 왕명으로 차나무 최초 식재

2022 진감 · 초의 · 만허선사 · 선차문화대축전

경상남도 기념물 제61호 차나무 시배지 지정 35주년(1987.08.06 지정)기념

쌍계사는 흥덕왕3년(828)대렴공이 당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차나무씨를 가지고와 왕명으로 쌍계사 일대에 최초로 식재하였고, 진감선사는 화개골 일대에 차나무를 번식하여 고려시대에는 차 문화가 흥하다가 조선시대는 불교 탄압과 함께 발전을 멈췄고 일정 때는 짐승들의 놀이터였다가 1975년 고산선사께서 차나무시배임을 아시고 정비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차나무 밭으로 인정하여 경상남도 기념물 제61호로 지정되었다.

* 일시 : 4월 22일(음3.22) 금요일 ~ 4월 24일(음3.24) 일요일까지
* 장소 : 쌍계사(차나무 시배지등) 일원
* 주최 : 재)고산문화재단
* 주관 : 사)진감초의 다맥 한국선다회, 사)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 후원 : 쌍계총림 쌍계사 본 말사연합회, 석왕사, 혜원정사

◆참여단체 : 봉녕사 차문화연구원, 쌍계사선다회, 혜원정사선다회, 석왕사선다회, 부산선향다례, 울산다도예절협회, 금당차문화회, 강릉용연사선다회, 사)종정차문화회

선(禪) · 교(敎) · 율(律) 차(茶)와 범패(梵唄)의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총림 쌍계사

www.ssanggyesa.net 종무소 : 055)883-1901